

## 내 마음의 강



River &amp; Culture



김혜영! 방송인

# 흥양천에 살어리랏다...

몇 해 전 방송국 일로 강원도 원주근방을 방문하였다. 활영스케줄에 여유가 생겨 유년시절을 보냈던 원주시 동네 근처를 가보리라 결심하고 차를 뺐다. 시동을 걸고 내비게이션을 켜고 ‘태장동’을 눌러놓고 출발하려하니 마음은 벌써 어린 시절로 돌아가고 있었다.

이름들은 기억에 기물기물 하지만 초롱초롱한 눈빛만은 가슴에 또렷한 동네 친구들의 얼굴들이 차창 풍경과 겹치며 지나갔다. 한창 더웠던 이즈음 어린 시절 우리들에 놀이터는 조그만 개천이었다. 풍덩거리며, 까르르 웃으며, 이리저리 뛰어다니며 한없이 행복했던 그 개울가, 그리고 눈이 시도록 파란 하늘. 저녁 무렵이면 개울가는 동네 사람들의 사랑방으로 변한다. 이른 저녁 드시고 한분 두분 먼저 자리 잡으시던 아버지, 삼촌들을 뒤이어 나의 꼬맹이 친구들이 소리를 지르며 냇가로 모여든다. 설거지를 마치신 엄마, 누나들은 모깃불을 한손에 드시고 맨 끝으로 합류하였다. 낮에 냇물에 넣어둔 어항을 찾아 헤매던 옆집 오빠, 삶은 옥수수, 감자를 한입에 가득 넣고 어른들 돛자리 한구석을 차지했던 동생들. 해지며 빨간 석양이 사라지고 별이 총총 모습을 보이는 무렵까지 우리는 냇가에서 한여름을 지내고 있었다.

유난히 이쁜 자갈이 많았던 그 냇가에 어느 날인가 큰 트럭이 들어와 자갈을 싣고 있었다. 우리 동네에도 건설 개발의

붐을 피해가지 못했다. 그런데 트럭에 싣고 갈 자갈들을 우리가 모으고 있었다. 그것도 가족단위로 그렇게 모아진 자갈은 업체 아저씨에 의해 계량되어 돈 몇 푼이 엄마 손에 쥐어졌고 우리는 사랑 사먹으라 또 몇 푼이 우리 손에 쥐어 주었다. 마냥 좋았다. 달콤한 사탕을 먹기 위해 우린 열심히 이쁜 돌들을 한 곳에 모으고 또 모았다. 내 추억은 달콤한 사탕뿐 그 후 냇가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는 기억에 없다.

이런 저런 생각을 깨운 것은 목적지에 도착했다는 내비게이션 음성이었다. 차에 내려 찬찬히 주변을 살펴보았다. 어린 시절 냇가는 그 곳에 없었다. 오래되고 조그만 콘크리트 다리가 예전에 그곳임을 느끼게 해주고 있을 뿐, 내 추억의 냇가는 너무도 많이 변해 있었다. 먼저 냇가를 흐르는 물이 예전에 비해 많이 적었다. 그리고 강가에 느티나무, 미류나무는 아파트 단지로 변해 있었다.

설레는 마음에 들었던 핸드폰의 사진 모드를 정상모드로 복귀시키며 차에 올랐다. 너무도 변해버린 모습에 당황한 나는 황급히 차를 몰고 그곳을 벗어나려 하였다. 그런데 신호등에 걸려 정차한 차에서 무심코 바라본 내 어린 시절 하천에는 운동복 차림에 조강하는 아저씨, 자전거 타는 젊은이들, 공놀이 하는 아빠와 아들. 모두 나를 행복한 표정으로 강가의 풍경을 만들고 있었다. 시절이 변해 냇가 모습이 변



현재의 흥양천 모습

한 것 뿐, 냇가와 함께 하는 사람들에 마음은 그닥 변하지 않았다. 속 좁은 마음이 부끄러워지며 천천히 엑셀을 밟아 차를 출발시켰다.

촬영을 마치고 서울로 올라오는 길에 오늘 일을 생각했다.

시민이 즐길 수 있도록 하천을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나 같은 사람들을 위해 조그만 공간이라도 예전 모습 그대로 복원하는 것도 좋지 않나? 잠시 어린 시절 추억에 젖었던 중년

여인에 욕심인가? 반문해 본다. 🌐

